

## 청소년의 약물남용 경험

김 귀 분\* · 이 경 호\*\*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의 시대처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제 청소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청소년의 범죄, 자살, 폭력, 비행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표현들로 청소년을 묘사하고 있어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청소년기는 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혼란과 갈등은 매우 크고 자기통제와 조절능력은 약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불안, 우울, 외로움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격동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음주와 흡연에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 약물남용으로 빠지게 된다.

청소년 약물남용은 한국 사회의 특유한 현상만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문제시되어, 선진국에서는 성 문제와 더불어 현재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미 청소년들의 흡연, 음주, 약물남용, 비행 등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치열한 입시 전쟁으로 그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어느 집단보다 높아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외로움과 불안, 좌절을 잊기 위한 도피처가 바로 약물을 찾

는 것이다(한국청소년학회, 1996).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이 사회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나 사회전역의 관심은 끌지 못하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본드 등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되자 이러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화하기 시작하여, 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수는 18만으로, 전체 청소년(16-19세)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가 인천 시내 중, 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약물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5%가 부탄가스 및 본드 등 환각 흡입물질을, 1.4%의 학생들이 대마초를, 0.8%가 히로뽕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부모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김성이, 1989; 김현수, 1988; 한국청소년학회, 1996). 이렇게 청소년 사이에 약물사용 행위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 통제적 관점에서 처벌과 법적 규제만으로 처리되고, 아무런 근본 치료적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주로 약물오·남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등 주로 약물사용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시도한 양적연구 및 횡단적 연구설계가 많이 행하여졌으며(김성이, 1992; 김소야자, 1991; 박충선, 은종영, 정미영, 1999; 배종면, 양윤옥, 박병주, 1994; 이경영, 1993; 주왕기, 1991) 이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교수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부 시간강사

들 논문은 주로 실태 분석에 치중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약물사용 행위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은 신체적·정서적 차원의 접근으로 사회 통제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대처방안은 사회제도적인 접근과 아울러 사회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혼란과 갈등의 시기인 청소년기의 그들의 심리상태는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심리상태에 따른 약물남용 경험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인간을 통합된 존재로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는 간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남용하는 약물이 청소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체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접근법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약물남용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들의 생각, 느낌 등 대상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그대로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약물남용청소년의 체험 세계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밝혀 그들을 위한 질적인 삶을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약물남용청소년의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함으로써 보다 질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도모하기 위한 전인적 간호중재를 모색하는 데 있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의 의미를 파악한다.
- 2)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의 의미구조를 기술한다.
- 3)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을 통한 간호학적 접근 방안을 모색한다.

## II. 문헌 고찰

### 1. 인간 성장발달과정과 청소년

인간의 성장발달은 인생의 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며 이 발달은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포함되며 특정기능의 변화는 다른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성장발달은 상호적이고 누적적이며 발달변화의 속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의 행동양상이나 기능의 발달속도도 각각 다른 것이 그 특징이다(이관용, 김기중, 김재갑, 이태연, 1995). 인간

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영향과 외계로부터 받은 환경의 변화이며 최적의 시기가 있어 어머니에게 애착을 형성해야하는 시기에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지적 발달의 지체는 물론 정서적, 성격적 발달에도 결함을 갖게 된다(김태련, 장휘숙, 1991). "아이는 인간의 어버이이다"라는 말은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연속성을 반영한 말이며 성인의 행동과 성격 특성은 생애의 초기에 일어난 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홍강의, 이영식, 1998).

청소년기는 아동기 말과 성인기 시작사이의 변환기로서 12세-13세부터 20-21세까지를 말하며 신체적 변화, 인지적 발달 및 가정과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는 정서적 격동 시기이다(김소야자, 1987). Hall G.S.(1844-1924)은 청소년기는 질풍 노도의 시기이며 보다 높고 더욱 완전한 인간 특성이 새로이 나타나기 위한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였으며, Freud(1950)는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발달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았으며 사춘기(13-18세)동안에는 생리적 성숙의 결과로 성적인 충동이 나타나며 사춘기의 생물학적 변화는 본능과 자아사이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하였다. Erikson(1972)은 인간의 발달은 영아기 때부터 성인후기까지 일생동안 계속되며 각 발달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심리 사회적 위기를 지니고 있고, 매 단계에서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각 개인의 독특한 성격이 형성되며 청소년기는 정체감 대 정체감 혼돈 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정체감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청소년들은 동일성과 연속성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탐구하고자 애쓰며 과거의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한 위기 해결 방법을 반복하면서 정체감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박예숙, 1983). 청소년의 사회적 성장과 발달면을 보면, 그들은 정서적으로 성숙되어 심리적 이유 현상이 나타나 그들의 관심은 가정에서 친구들에게 향하며,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는 집단을 형성하고, 이성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외모에 관심을 갖고, 권위에 반항하며, 자아의식 발달로 편견을 갖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며, 사회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특징을 보인다(정우식, 1986). 그리고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은 고조된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해 정서에 일관성이 없고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하며, 사건이나 사회적 상황에 매우 민감하고, 강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정서와 사고의 양극성으로 다양한 정신 생물학적 욕구사이에 조화가 부족하여, 양가 감정을 지니게 된다. 이시기의 청소년은

역활에 대한 준비결여, 부모의 무관심과 반대, 늘어나는 경제적 욕구 등이 정서적인 고통을 유발시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여 충분히 배출하지 못할 때에는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소외, 부적응 행위를 초래하기도 한다(박예숙, 1983). 그리하여 이 시기에 만성적인 정서적 고통을 당하면 청소년들은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되고 이로 인해 신경증적 행동이나 비행, 가출, 약물남용 같은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서영대, 1989). 많은 청소년들은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갈등을 내적으로 해결하는 대신에 약물 등을 취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일시적으로 피하려고만 한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반영된 문제들은 한 인간으로서의 발달에 중요하며, 이시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 중 의미있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갈등 시기의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측면을 이해하여, 이들이 인격의 통합과 조화를 이루어 성인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는 필요한 것이다.

## 2. 청소년과 약물남용

청소년기는 기분 변화가 심하고, 우울 반응이 많고, 성인이 되기위한 준비과정으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시기이며 독립성을 찾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투쟁하는 동시에 외로움과 고달픔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므로 약물의존에 취약성을 갖는 시기라고 하였다(P. H. Connel, 1979). 그리하여 청소년들은 아직 미성숙에서 오는 의존성과 호기심, 도전심과 친구들의 권유나 동질성 유지를 위해 약물을 접하게 된다. Friedman(1987)은 조기 아동기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집안이나 학교에서 음식 투쟁이 심한 경우 등 행동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잔인하고 반항적인 태도가 있을 때, 약물남용의 위험이 높다고 하였다. 서울시 교육 연구원(1988)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과 모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의 압력이나 영향, 부모에 대한 반발심, 현대 생활의 압력으로부터의 도피, 소외감이나 사회적, 경제적 문제, 정서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약물에 탐닉하게 된다고 한다.

청소년 약물남용자들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약물을 한 두번 사용해본 청소년의 대부분은 신체적 거부반응이나 양심의 가책, 규범적 가치로 인해 벗어나게 되나, 청소년이 일단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약물남용으로 인한 자아지능 손상 및 약물 남

용 또래들과의 동조라는 사회적 가계를 형성하게 되며, 신체적, 사회적, 법적, 직업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이것이 지속되게 되면, 약물의존 상태로 발전되어 피해 망상, 환각, 강박증세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자아기능이 왜곡되거나 마비된다(최선화, 1991).

최근 들어 약물을 남용하는 자의 연령집단이 하향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약물남용 청소년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보건사회부, 1988).

민병근, 백영기(1981), 김현수(1985)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흥분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모험적 행동을 즐겨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 이것이 차단될 때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그들의 추구가 좌절되고 폐쇄될 때 분노 등을 흡입하여 자신들의 내적 욕망을 채우려하는 등, 약물남용 청소년의 52.2%는 정서적으로 자신의 격정적 감정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신경 안정제, 수면제, 마비화나 같은 환각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약물남용 행위와 성격적인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 결과(박중규, 1988)를 보면 마약의 경우에는 자아 중심적 특성, 정신적 문제 또는 성격장애 등이 나타나며, 환각제의 경우에는 욕구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완고하고, 급하고, 사회적 개방성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정신병리와 관련성(우울과 성격장애) 등의 성격특징이 나타난다고 한다. McIellan & O' Brian(1979)은 성적 약물남용의 경우 중요한 인물의 상실, 가족간의 갈등, 학업 성적의 부진 등과 같은 스트레스의 해결책으로 일시적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내에 존재하는 심리적 갈등이나 성격 특성, 성격구조와 약물남용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성격장애에 따라 약물 선호가 다르고 성격장애 특히 반사회적 성격이 약물에 취약한 성격이라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가족 특성에 관한 Becker(198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양친이나 형제들이 약물남용을 해온 가족에서 양육된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가 약물남용자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양친의 태도가 청소년의 약물복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불화, 양친의 거부, 이혼 등이 약물 남용과 관련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정환경 중 결손가정의 경우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하숙생의 경우,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약물남용율이 높다는 연구(권순경, 1989)를 보면, 가정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약물남용 청소년

의 체험을 이해하여, 정신 신경학적인 증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여, 더 이상의 약물남용으로 빠지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경험을 현상학적 접근을 통하여 파악하고 그 의미, 구조를 확인하고 기술함으로써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설계이다.

####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 하는 K 정신병원 청소년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약물남용 청소년으로 선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

- 1) 약물남용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 2)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고나 판단이 일관성이 있고 명료한 자
- 3)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본 연구 참여자의 수는 현상에 대한 진술이 반복될 때 포화에 도달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경험의 진술이 반복되는 시점까지로 하였으며 5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3명, 여자 2명 이었고 연령은 16세에서 18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17세였다. 교육수준은 중학교 3학년 2명, 고등학교 1학년 3명 이었다.

#### 2. 연구 참여자 보호

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참여자의 신분 및 신상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 3. 연구조사자 훈련과정

본 연구에서 사용할 현상학적 접근은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므로 연구주제에 적합한 심층면접 및 참여관찰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질적연구는 연구자가 도구이므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훈련을

위하여 기존문헌에 대한 연구와 질적 간호연구, 간호현상과 질적 연구, 횡문화 간호 및 면담기법에 대한 학점을 이수하였고 질적 연구와 관련된 학회 및 학술대회 등에 참석하고 논문 탐독을 통하여 학문적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1주일에 1회씩 정기적인 방문으로 참여자들과의 신뢰관계 형성기법을 익혔다. 특히 본 연구시도를 위하여 1차 적으로 구조적, 개방적 질문지를 통하여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질적 간호연구 전문가의 연구현장을 같이 다니면서 면접술 및 분석방법을 숙련화 하였다.

#### 4. 자료수집 과정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10월부터 자료가 완전 포화상태에 이른 1999년 9월까지로 하였으며 대상자의 경험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택한 병원을 미리 선정한 날짜와 시간을 맞춘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대상자와 상호 호혜적인 신뢰감과 친근감을 형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참여자의 면담 시 대화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대화내용은 가능한 면담 후 녹음된 내용을 즉시 직접 기록하였다. 면담시 질문은 비 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형태를 사용하여 의도적으로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도록 하면서 참여자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으며 질문내용은 알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대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갔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회에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다양하였으며 평균 1시간 30분 이었고 한명 당 방문한 횟수는 7회에서 11회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참여자가 이야기한 것을 녹음한 내용을 반복 확인하여 참여자의 말로써 기술 정리하였으며 8시간-10시간이 소요되었고, 면담장소는 병동의 상담실과, 때에 따라서는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시간은 병동 사정을 고려하여 참여자가 편안한 시간을 미리 정하여 참여자와 밀도 있는 접근을 하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약물남용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Giorgi(Omery, 1983)가 제안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진술을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기술문을 중심으로 비평적이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여러 번 읽으면서 꼼꼼히 생각한다.
- 2) 기술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돌린다
- 3) 사고를 시작하고 끝내는 단위, 즉 대상자의 말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기술의 단위를 중심으로 표현양식이나 어휘는 다르지만 의미의 단위를 규명한다.
- 4) 이러한 단위에서 대상자의 말로 표현된 대상자의 경험을 나타내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주제를 규명한다
- 5) 그 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기술단위 내에서 대상자의 경험이 대상자에게 의미하는 중심 의미를 연구자의 언어로 규명한다
- 6) 중심의미를 통합하여 각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인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만든다.
- 7) 상황적 구조적 기술문을 통합하여 전체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 구조적 기술을 만든다.

분석결과 확인된 의미기술이 연구참여자의 의미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연구참여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본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원자료에 의해 확인된 의미구조(주제 및 중심의미)를 질적간호연구회 회원들과 논의 확인하였으며, 국문학교수의 조언을 참조하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하였다.

#### IV. 연구 결과

참여자가 이야기하고 연구자가 심층면담 및 관찰하여 기술한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을 기술단위로 하여 주제와 중심의미를 찾아내고 이것에서 각 참여자의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제시하였다.

##### 1. 상황적 구조적 진술

사례 1. 고○○ (여/15세)-중학교 3학년 재학중

참여자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던져버리고 쉽게 잊어버리고 싶어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쾌락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아! 과연 저것이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도 일

어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것도 싫고 외로움에 지치고 위로도 받고 싶어 다가갔다.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몰려다니는 시끄러움 속에서도 외로움을 겪어야 했고 자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며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두려움 등을 경험하면서도 약물 유혹에 빠져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심각한 아이들은 방황과 후회를 거듭하며 심리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꿈의 환상세계로 몰입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현실감 있게 그려가며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2. 박○○ (여/18세)-고등학교 1학년 복학

참여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재미있었고 그들과 함께 하는 모든 것이 흥미가 있었고 순간적으로 오는 짜릿한 쾌감이 좋았다. 집에 오면 학교에 가라, 공부하라고 늘 상 소리쳐 대는 부모의 목소리가 지겨웠고 탈출해 나온 바깥 세계는 편안하고 자유로웠다. 부모의 자신에 대한 기대감에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부모와의 갈등에 가족간의 체제가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게 되고 오랜 동안의 바깥생활은 결국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부모와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 머리가 아프고 토하는 신체적 이상이 나타났고 환상을 일으켜 의식세계가 붕괴되어가고 있었다. 돈 많고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쏠리는 관심에 불만이 쌓였으나 결국 부모와 세상에게 자신을 인정하여 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기를 바라는 소망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 3. 김○○ - 중학교 2학년 재학중

참여자는 혼자 있는 외로움과 공허감을 매울 수가 없었다. 말할 상대도 없었고 말할 것도 없어 말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왜 학교에 가야하는지 몰라 도망치고 싶었으며 오로지 친구만이 자신을 이해하여 준다고 생각해 함께 몰려다니면서 자신도 어딘가에 소속되어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고 싶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싶었으나 그럴수록 자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및 신체적 불편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례 4. 민○○(남 /16세)-중학교 2학년 재학중

참여자는 아이들에게 소외됨과 따돌림이 싫었다. 지루하고 외로운 순간을 없애주는 그 세계가 좋았다. 가족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그들과의 삶은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 하는 사람들

이며 또 왜,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것일까? 선생님도 자신을 냉대한다. 친구들 앞에서 겪는 모욕감은 밤마다 선생님을 죽이는 꿈에 시달리게 하고 이러한 적대감은 타인에게 무조건 배타적인 마음을 지니게 하였다. 이러한 견딜 수 없는 갈등은 자신을 움추려 들게 하건만 환상 속의 세계에서는 자신을 대우해 주며 삶의 의미마저 느끼게 한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기쁜 순간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조금 후면 겪게 되는 두통과 구토 등 신체적 불편함에 시달리게 되면서 현실과 다른 환상 속에 빠져 심리적 혼돈을 겪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5. 안○○ (남/18세)-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참여자는 자신의 잘못보다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탓으로 잘못을 돌리고 있었다. 주위에 본 받을 사람들이 없고,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면서 남들과 다른 환경 때문에 세상마저 저주스럽다고 느꼈다. 짧

은 세상 삶에서 자신에게 터득되어진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과 세상 안에 머물러야 하는 자신에 대한 불안감과 무력감을 느꼈다. 점차 홀로 서기를 배워가면서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시키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하고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진리를 깨달아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점차 자기의식의 회복을 꾀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일반적 구조적 기술

약물남용 청소년은 쾌락추구, 소속감추구, 현실도피, 심약함, 심리적 부적응, 신체적 이상반응, 심리적 혼돈, 자기의식회복 등과 같은 경험의 의미로 구조화되었다. 약물남용청소년의 경험의 의미를 일반적· 구조적 기술로 확인한 결과는 <표>와 같이 나타났다.

원 자료	주 제	중심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전히 호기심이다. 친구들과의 호기심으로 하였고</li> <li>· 멋있어 보이고 궁금했다.</li> <li>· 좋아 보여 호기심이 일어났다.</li> <li>· 괜히 끌린다.</li> <li>·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하게되었다</li> <li>· 호기심으로 하게 되었는데 짜릿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li> </ul>	호기심	쾌락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분이 좋다.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는가?</li> <li>· 입을 대는데 어지럽다가 기분이 좋아져서 빈집에서 매일 모여 하게 되었다</li> <li>· 이빨사이에다 가스통을 대고 누르면 배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li> <li>· 이런 기분이 있다니-정말 놀랐다</li> <li>· 느낌은 너무 좋다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하게 된다</li> <li>·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져서 자꾸 하고 싶다</li> <li>· 난 좋다. 이럴 수가 ! 꿈속 같다.</li> <li>·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져서 자꾸 하고 싶다.</li> <li>·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뻐다. 하늘에 떠 있는 것 같고 정말 태어나서 제일 기분이 좋았고 정말 기분이 기가 막히다.</li> <li>· 그 쾌감은 내가 태어나서 느낀 기쁨 중 제일이다. 제일---기분이 좋아져서 자꾸 하고 싶다</li> <li>· 나는 기분이었다. 붕 떠 있는 기분.</li> <li>· 뜨는 기분이 제일 좋았다.</li> </ul>	기분 좋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자유로워서 친구랑 같이 재미로 하게 되었는데 너무 재미있다.</li> <li>·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재미있었다.</li> <li>· 느낌이--- 재미있고</li> <li>· 너무 재미있다. 맛을 보니까 무척 좋았다</li> <li>· 기분만 좋았는데 계속하니가 재미있다.</li> </ul>	재미	

원 자 료	주 제	중심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들과 코메디 같이 놀고 친구들에게는 마음 놓고 이야기 한다.</li> <li>· 친구들은 소중하다. 친구들이 부모보다 좋다. 친구가 제일 좋다.</li> <li>· 친구만 생각하면 살아 가는게 즐거움이다.</li> <li>· 친구가 제일 좋다. 가족보다도 친구가 좋다</li> <li>· 친구에게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해준다</li> <li>·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친구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의리가 있지 친구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 하게 되었다</li> <li>· 가족들도 싫다 친구가 가족보다 낫다. 아, 친구가 있어 얼마나 좋은가!</li> <li>· 노는게 좋다 좋은 친구랑-- 친구가 있어 살 수가 있다.</li> <li>· 친구가 제일 말은 잘 통하는 것 같다</li> </ul>	<p>또래 집단 형성</p>	<p>소속감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가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싫어서 이길려고 그 아이보다 더 많이 하였다. 6개 하면 나는 영웅심 7개 하고</li> <li>· 우울감을 가진다. 지기 싫다. 아이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고 싶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안 에서는 실패라는 것은 없다</li> <li>· 가스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li> <li>·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li> <li>·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빠져 자신 있게 한다.</li> </ul>	<p>자신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제껏 너무 외로웠다. 아무도 곁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li> <li>·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늘 옆을 보면 아무도 없다.</li> <li>· 내가 이다지도 어렵건만 아무도 알릴 사람이 없다.</li> <li>· 집에 오면 미칠 지경이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 견디기가 어렵다.</li> <li>· 이야기 하고 싶을 때 옆에 사람이 없다.</li> <li>· 외로운 순간이 없다. 가스를 하니깐 그러나 더 외로워진다.</li> </ul>	<p>외로움</p>	<p>현실도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심심하고 허전하고 무얼해야 할지 몰라</li> <li>· 허전해서 또 가스를 하게 된다(허전함)</li> </ul>	<p>허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꼭 빠진다</li> <li>· 아무 생각도 안하고 오직 그곳에 빠진다</li> </ul>	<p>자아몰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안한 것이 좋다. 무조건 편안한 것이 좋다.</li> <li>· 안하면 너무나 허전하고 이상하다</li> <li>· 마음이 가라 앉기도 하고 긴장감이 해소되어서 편해진다</li> </ul>	<p>편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들이 괜히 날 보고 수근거리고 괜히 표정을 지을 때는 기분도 나쁘고 무척 불안하기도 하다.</li> <li>· 날 어떻게 생각 할까 항상 불안하다</li> <li>· 웬지 불안하다.</li> <li>· 꿈이 없어졌다. 다 사라졌다. 초조하다.</li> <li>· 짜증나고 우중충해서 싫다. 색깔이 이상해서 싫다.</li> <li>· 성격이 배타적이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다.</li> <li>· 가스를 한다는 상황을 그려보면 불안하기만 하다.</li> <li>· 가스를 하는 동안은 편안함이라기 보다는 불안감이 더욱 심하다.</li> <li>·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여야 될 지 모르겠다.... 마음이 두근두근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li> <li>· 하고 있는 것이 없어 불안하다. 불안??</li> <li>· 하는 것이 없어 불안하다. 불안??.... 신경도 예민해지고 자꾸 짜증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li> <li>· 접은 학을 만진다. 나도 모르겠다.</li> <li>· 생각이 깊은 것이 때로는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한다</li> </ul>	<p>불안감</p>	<p>심약함</p>

원 자 료	주 제	중심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깥의 생활이 적응이 안될것 같아 두렵다</li> <li>· 적응이 안되고 겁도 나고 무섭고 하였다</li> <li>· 적응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li> <li>· 그냥 그 그림에 나오는 사람처럼 될까봐 무섭다</li> <li>· 기형아 낳기 싫다. 두렵다.</li> <li>· 가출해서 친구집에서 자다가 잡힐 것 같아 무섭고</li> <li>· 나쁜 짓을 해서 이런 곳에 왔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어떻게 다닐 지 모르겠다</li> <li>· 두렵다. 이상한 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li> <li>· 생각할 수 없게되면 어떻게 하나? 무섭고 답답하다.</li> </ul>	두려움	심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제일 미치겠다</li> <li>· 시간이 너무나 많고 아무도 없고 심심해서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된다</li> <li>· 안해야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안된다</li> <li>· 가스를 좋아하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li> <li>· 가스를 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li> </ul>	유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도 없으며.... 가진 것도 없고....</li> <li>· 생각을 안하는 것이 좋다.</li> <li>· 머리가 텅 비었으면 좋겠다.</li> <li>· 지루해서 수업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다.</li> <li>· 가스를 한 후에는 같이 지루한 것인데도 참지를 못하고 1시간 정도 하다가 뛰쳐 나온다.</li> <li>· 생각이 전혀 안나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li> </ul>	방황	심리적 부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이 없다</li> <li>· 꿈이 없어졌다 다 사라졌다</li> <li>· 희망이 안보이니까 이제는 필요가 없다</li> </ul>	꿈의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를 할 때는 힘이 없어지고 말도 없어진다</li> <li>· 놀지도 않고 혼자서 멍하니 있다.</li> <li>· 어지럽고 축 처지고 몸이 힘들어서 학교에 갈 수가 없다.</li> <li>·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li> <li>· 힘이 없다. 왜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li> <li>· 도저히 아무 생각이 안나고 힘이 약해진다.</li> </ul>	무력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드를 하고 나면 죽을 것 같이 머리가 아프다</li> <li>· 본드를 하고 나면 머리가 아파서 이빨 아픈 것을 참고 가스를 했다</li> <li>· 어지럽고 머리가 뻐개질 것 같고 너무 괴로워서</li> <li>· 머리가 더 아프다. 머리가 아파서 짜증난다.</li> <li>· 머리 아프고, 눈이 빠지듯 아프고.</li> <li>· 몸이 나쁘고 머리 아프고 손도 떨리고</li> <li>·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고 이상하다</li> </ul>	두통	신체적 이상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속이 안 좋고 토하고, 토할 때는 속이 쓰리고</li> <li>· 속이 답답하고 자꾸 올라 오려고 하여 손가락을 넣어서 토한다</li> <li>· 가스 할 때는 본드보다 더 많이 토한다.</li> <li>· 하고 나면 토하고 싶다</li> <li>· 미식거리고 쓴 물이 올라온다.</li> </ul>	구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억력이 떨어지고</li> <li>·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다</li> <li>· 깨어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안난다.</li> <li>· 기억력은 떨어진 것 같다</li> <li>· 복잡한 것을 잊을 수 있어서 좋다</li> </ul>	기억력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밥맛도 없다.</li> <li>· 밥생각이 나지 않는다.</li> <li>· 밥 맛도 없다. 밥만 보면 먹고 싶어 이렇게 살이 쪼들만...</li> </ul>	식욕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끼발가락이 감각이 달라진다</li> <li>· 아무 것도 모른다. 전혀</li> </ul>	감각상실	



원 자 료	주 제	중심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느낌이 정신이 이상하고 원하는대로 무엇이든지 다 됐다.</li> <li>· 놀이 공원에서 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타게되고,</li> <li>· 우주 공간 같은 곳에 혼자 있고 싶어하면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우주에서 내가 똥똥 떠난다</li> <li>· 꿈속의 그곳은 너무도 아름답고 좋다. 모두가 미인이고 모두가 천사이고 악마가 없다.</li> <li>·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서 엎어져 눈을 감았는데 빨간 회오리 바람처럼 아른거리는 것이 멋있게 보였다. 너무도 재미있게 웃고 있었다</li> <li>·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 보디가드가 늘 나를 지켜준다. 보디가드가 나타나서 힘센 아이가 지켜준다</li> <li>· 아이들이 보인다. 여관에서 하면 여관 벽 쪽에서 찬란하게 보이고 이상한 문이 보이고 누가 나오고 재미있게 해 달라고 하면 재미있게 해 주고 보고 싶은 사람이 보인다</li> <li>· 보고 싶은 것은 다 볼 수 있다</li> <li>· 시냇물이 빨강고 파랑고-빨간 것은 한 사람에게 가고, 또 파란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돌이서 마구 사랑을 한다. 보고 있으면 짜릿해 진다</li> <li>· 천장이 화려해 지고 나서 보디가드가 나타나서 은하수처럼 무엇인가를 뿌린다. 멋있고 아름답다.</li> <li>· 작은 인형이 이야기를 하고 어깨동무하고 너무 예쁘다</li> <li>· 반짝 반짝 보인다</li> <li>· 가스 안에서는 오락을 할 수 가 있다. 환상이 보인다. 하여튼 보고 싶은 것이 다 보인다. 친구도 보이고, 생각하는 게 다 보인다.</li> </ul>	환상	심리적 혼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렇게 밝게 웃는 웃음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li> <li>· 어디가게 해달라면 어디까지 데려다 준다. 웃으면서</li> </ul>	환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끔 꿈을 꾸다</li> <li>· 집에서 가스 하는 꿈을 꾸다</li> </ul>	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회가 된다.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li> <li>· 생각해 보면 끔찍하다. 쓰레기 같은 나의 모습이 괴롭기만 하다.</li> <li>· 가스를 하고 나니 친척들에게 창피하다.</li> <li>·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li> <li>· 엄마 편지 보니까 미안했다. 엄마에게는 너무나 미안했다. 엄마가 죽는 모습을 어떻게 볼지---</li> <li>· 너무 잘못을 많이 하는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li> <li>· 가스를 하고 나니 친척들에게 창피하다.</li> <li>· 가스를 하고나니 친척들에게 창피하고 그들을 피하고 싶다.</li> <li>· 나는 무엇인가?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li> <li>· 정신병원에 있는 나 자신이 싫었다.</li> <li>· 어쩔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희망이 안 보이니까.</li> <li>· 하고나면 편 할 줄 알았는데 힘이 들어졌다. 선입관으로 볼것 같아서---- 몇 천명의 눈이 쏠리는것을 못 이기고--</li> <li>· 약물을 하느니 죽고 싶다. 감옥에 가느니 정말 죽고 싶다.</li> <li>· 약물한 후에 우울한 기분이 너무 싫다.</li> </ul>	후회	자기 의식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부터 오는 세상이 나를 따스히 안아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세상으로 좋게 나아가고 싶다</li> <li>·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li> <li>· 건강하고 싶다. 몸도 마음도...</li> </ul>	바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li> <li>· 예전에는 몰랐는데 집은 편안해서 좋다</li> <li>· 기쁜 것이 멀리 있는 줄 아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li> <li>· 나쁜 일이 생기면 기도 안했는데..... 시험 볼 때가.... 난 그때 신앙적인 힘을 느꼈어요</li> <li>· 아빠가 밭새놓고 물 떠놓고 빌었거든요.</li> <li>· 무엇이든지 감사한 마음이 든다</li> </ul>	깨달음	

## V. 논 의

### 1. 약물남용청소년의 경험의 의미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세계의 의미 구조를 확인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심층면담과 참여, 관찰법을 통하여 참여자들이 경험한 진술을 중심으로 <표 1>에서와 같이 크게 8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첫째, 쾌락추구 : 호기심, 기분 좋음, 재미.

둘째, 소속감 추구 : 또래집단 형성.

셋째, 현실도피 : 외로움, 허전함, 영웅심, 자신감, 자아몰입, 편안함.

넷째, 심약함 : 불안감, 두려움, 유혹

다섯째, 심리적 부적응 : 방황, 꿈의 상실, 무력감.

여섯째, 신체적 이상반응 : 두통, 구토, 기억력 저하, 식욕상실, 감각상실

일곱째, 심리적 혼돈 : 환상, 환청, 꿈.

여덟째, 자기의식회복 : 후회, 바램, 깨달음.

첫 번째의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으로는 <쾌락추구>로 확인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호기심, 기분 좋음, 재미 등 3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Mandelson & Mell(1979)은 호기심에 의해 약물을 사용하게 되며 대인관계의 실패, 모방, 정체감의 혼란,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약물에 의존하게 되며 심한 경쟁과 소외감, 고립에 의해 이러한 행동은 유발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호기심으로 약물에 손을 대어 그들은 순간의 기쁨과 재미를 만끽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갖게되는 자신들의 쾌락이란 지금까지 받아온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의 간섭이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1과 3의 경우에서는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양육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정상으로 걸어야 할 노선에서 벗어나 또래집단을 만들고 일회적이고 감각적인 돌파구를 찾아 자신을 시달리게 함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으로 <소속감 추구>로 확인되었으며, 그 주제는 「또래집단 형성」이었다.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약물을 사용

하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자아개념 및 지능의 손상과 신체적, 사회적, 법적, 직업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서영대, 1989; Lettieri, 1975) 이들에 의하여 형성된 또래집단은 주위 환경에 심한 마찰을 보일 뿐 아니라 때로는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정 및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견디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형편과 처지가 비슷한 청소년끼리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서로의 소속감을 부여하고 확인하면서 약물남용에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사례 2와 3의 경우에서도 가족보다 친구가 훨씬 좋고, 특히 친구에게는 마음이 약해지면서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해 줄 수 있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의할 수 있으며, 의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친구와의 결속력을 매우 깊이 유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으로는 <현실도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을 보면 외로움, 허전함, 영웅심, 자신감, 자아몰입, 편안함의 6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shman, H.C.(1982)연구에서는 약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친구들의 압박에 대한 취약성, 자아존중감, 건강에 대한 내적 통제 등이 약물남용과 관계가 있으며 이를 복용한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약물사용이 더 지속되게 되면 약물의존 상태로 발전하게 되어 피해망상, 환각, 강박증세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자아가능이 왜곡되거나 마비되게 된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약물상태에서 자신감을 지니게 되었으며 외로움과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으며 사례2의 경우에서는 약물 안에서 만큼은 한껏 몰입할 수 있었으며 무엇인가에 집중되어 행복감을 느끼며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타인을 계속 부정하기에 지닐 수 없었던 편안함을 경험하면서 현실로부터 자신을 도피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째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으로는 <자기조절 불능>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을 보면, 불안감, 두려움, 유혹의 3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중독으로 인한 정신과적 합병증의 발현비율을 보면, 정신분열병이 44%, 성격 및 행동장애가 68%, 우

울증이 8% 등이었다(고복자, 김경빈, 김소야자, 1993).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물질획득에 대한 집착이 무척 강해 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해야하는 책임도, 즐거움도, 중요한 대인관계도 포기한다. 그리고 좋지 않은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강박적 증상이 있다(김경빈, 1994). 환각제의 경우에는 욕구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완고하고, 급하고, 사회적 개방성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정신병리와 관련성(우울과 성격장애)등의 성격 특징이 나타난다고 한다(박중규, 1988).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심리적 갈등으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자기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확인되었고 사례1과 사례5에서보면 참여자는 가스를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좋지만 하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불안하다고 하였으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나서 마음이 불안하였으며 모든 상황에서 타인을 의식하게 될까 학생으로서 시험과 가족의 기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친구관계에서도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편안함을 추구해 더욱 약물을 남용하면서 자기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으로는 <심리적 부적응>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방황, 꿈의 상실, 무력감의 3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lellan 등(1979)의 연구에서는 급성 약물사용의 경우는 중요한 인물의 상실, 가족간의 갈등, 학업 성적의 부진 등과 같은 스트레스의 해결책으로 일시적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약물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내에 존재하는 심리적 갈등이나 성격 특성, 성격구조와 약물남용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Fishman, H.C.(1982)연구에서는 약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친구들의 압박에 대한 취약성, 자아존중감, 건강에 대한 내적 통제 등이 약물사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약물의 사용으로 무력감을 경험하며 방황하게 되고 자신의 꿈을 상실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후회의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사례에서도 약물사용으로 인하여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고 심한 좌절을 느끼고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를 반복하였으며 사례4와 사례5의 경우 제대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기의 상실을 통해 쉽게 포기하고 쉽게만 살아왔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없었지만을 바란다. 자신이 없어지든지 세상이 없어지든지...말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을 돌아보며 외진 곳에 버려졌음

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심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 번째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으로는<신체적 이상반응>으로 나타났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통, 구토, 기억력 저하, 식욕상실, 감각상실의 5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빈(1994)의 연구에서 나타난 약물사용 후 신체적 손상을 살펴보면 뇌조직, 콩팥, 조직, 골수조직에 이상이 생기며 의식이 몽롱해 지며 현실감이 무너지는 대신에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며 괴로움을 잊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였으며 이경호(1999)가 한국 청소년의 물질남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증상을 살펴보면 정서, 심리 및 사회적으로 기분이 좋고, 황홀하고, 재미있고, 편안하고, 외로움을 잊어 버리고, 매사에 충동적이고, 집단 의식이 강해지고, 판단력이 없어지고, 신체적 변화는 의식이 없어지고, 환청, 환각, 스틸을 통해 다른 세상을 보게되고,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타나고, 속이 아프고, 수면장애가 나타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뇌세포가 망가지고, 귀가 들리지 않고, 보행이 어렵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말하기가 싫어지고, 졸립고, 목이 아프고, 입 주위가 변화되고, 체중이 감소되고, 침과 땀의 분비가 증가되고, 식욕이 없어지고, 체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사례에서도 두통, 구토, 기억력 저하, 식욕과 감각의 상실의 신체적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사례2와 사례4에서는 눈이 빠질 듯한 고통과 쓴 물이 올라오는 역겨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곱 번째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으로는 <심리적 혼돈>이 나타났으며 환상, 환청, 꿈의 3가지 부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남용이 지속되게 되면 약물의존 상태로 발전하게 되어 피해망상, 환각, 강박증세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내게 되고 자아기능이 왜곡되거나 마비되게 된다. 김경빈(1994)은 약물을 사용하면 유쾌감, 술취한 듯한 느낌, 외진 곳에 버려진 느낌, 전지전능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농도가 짙어지면 흐릿한 의식에서의 환상과 (12.9%) 환각을 경험하다가 의식을 잃게 된다고 하였다. 이경호(1999)의 청소년의 물질남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나타난 물질남용 청소년의 사례를 보면 "옥상에서 밑을 보니 수영장과 같이 뛰어내리고 싶었다"고 하였고 "아파트 옥상에서 내려다 본 밑의 광경은 잔디밭에

폭신한 침대가 깔려 있어 높고 싶어 뛰어내리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환상과 환청, 꿈을 경험하였으며 사례1과 사례2와 사례4의 경우에는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데로,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싶은 데로, 자신들의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며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쁜 경험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여덟 번째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으로는 <자기의식 회복>으로 나타났으며, 후회, 바램, 깨달음의 3가지 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정체감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청소년들은 동일성과 연속성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탐구하고자 애쓰며 과거의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한 위기 해결 방법을 반복하면서 정체감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박예숙, 1983). 이 시기에는 신체적 변화, 인지적 발달 및 가정과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피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취하기 위한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경호(1999)의 연구에서 물질남용 청소년들은 사랑으로 치유받고 싶다고 하였으며 제발 누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의 학업과 모든 인간관계도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심리적 고통을 통하여 세상을 배워가면서 바램과 깨달음을 터득하게 되는 자기정체감이 확립되어지는 자기의식의 회복을 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청소년의 약물남용 경험에 대한 간호중재 방안

청소년 시기에 사고의 바탕이 환경에 의하여 흔들리고 시각의 중심점을 잃어버리게 된 청소년들은 감정이 매우 유동적이며 가변적이 되어 때로는 모든 것을 의심하며 매우 소극적이 되고 심한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경향도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환경자극에 대하여 지나치게 민감한 청소년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 극단적이고 과격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게 되어 충동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게 되고 약물에 탐닉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이들을 위하여 행하여할 간호중재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들은 성인사회에 대한 호기심에서 약물을 하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재미가 있어서 약물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무

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되는 기쁨보다는 짧은 순간에 쉽게 이를 수 있는 짜릿함을 원한다. 이와같이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므로 그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이 허용됨은 물론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개방적·창의적인 여가활동 기회를 조성시켜 줌으로써 감각적이고 향락적인 쾌락의 존도를 억제하는 건전한 청소년 놀이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그들에게 소속감을 가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또래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고 또래친구 안에서 소속을 확인할 때 신의를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의 우정을 나누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간다. 이들이 학업 등 자신의 문제로부터 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전한 동아리 활동이 구성되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길러주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건전한 또래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표현을 하며 이러한 친구와의 나눔을 통해 정체감의 형성을 돕고 사회적인 관계를 배우며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보다는 우선 피해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며 여러 가지 사회적응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므로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는 힘을 키워주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심각한 상태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실패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과 무엇인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하고 자신이 애쓰는 과정이 요구됨을 일깨워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부족하여 방황하고 후회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자신이 가진 꿈을 상실하게 된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감정처리 방법, 의사결정 방법,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기분을 유지하는 방법, 의사소통 방법, 그리고 거절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사회적 생활기술(life skill)교육을 실행함이 필요하다.

다섯째, 약물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약물은 진행성의 질환이고, 전염성이 강한 질환이며, 만성적인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파괴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질환임을 알게 하여 주는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게 하는 약물교육대책이 마련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여섯 째, 청소년들은 약물로 인한 환상, 환청, 꿈으로 심리적인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에게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심리적 혼돈에 대한 전환을 도모한다. 환상, 환청, 꿈 등 흥미와 감각적으로 혼돈 된 상태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신체운동을 겸비하며 일에 대한 신성한 대가를 얻는 건전한 성취감도 경험하게 하여 사회적 재활을 도모한다. 그리고 공동작업을 통하여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안정감을 가져 혼돈된 심리상태를 정리하여 그들에게 억눌린 부분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약물에 심화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치료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사회성과 자신감, 자존감을 가지게 하고 사회에 환원하여 다시 약물에 빠져들지 않고 재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약물남용 청소년의 살아있는 경험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기술하여 의미구조를 밝힘으로써 이들을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설계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참여자는 서울 소재 K 정신병원에 입원한 청소년 5명으로 1998년 10월에서 1999년 9월까지 면담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Giorgi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약물남용 청소년의 경험의 의미는 첫째, 쾌락추구: 호기심, 기분 좋음, 재미, 둘째, 소속감 추구: 또래집단 형성, 셋째, 현실도피: 외로움, 허전함, 영웅심, 자신감, 자아몰입, 편안함, 넷째, 심약함: 불안감, 두려움, 유혹, 다섯째, 심리적 부적응: 방황, 꿈의 상실, 무력감, 여섯째, 신체적 이상반응: 두통, 구토, 기억력 저하, 식욕상실, 감각상실, 일곱째, 심리적 혼돈: 환상, 환청, 꿈, 여덟째, 자기의식회복: 후회, 바램, 깨달음으로 확인되었다.

### 제 언

이상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 약물남용의 특징이 가족간의 결속 결여 및 사회의 물이해로 생겨 그들 나름으로의 돌파구 모색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로써 또래집단을 형성하여 쾌락을 추구하면서 현실도피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 및 사회는 이

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로 진정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해의 차원에서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고복자, 김경빈, 김소야자 (1993). 청소년약물남용예방 대책. 문화체육부.

권순경 (1989). 중고등학생의 약물사용 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 의약자원 개발 연구소.

권이종, 남정걸, 차경수, 최중옥, 최운실, 최윤진 공저 (1991). 청소년 교육론, 서울:양서원.

김경빈 (1992). 청소년 약물 오·남용. 보건사회부 대한 보건협회. (1994). 청소년 약물남용과 가정,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 경제적 영향 연구 제 4장. 문화 체육부. 청소년 정책실 청소년 지도과. (1994). 봄에 지는 낙엽들: 약물중독 현장보고서.

김성이 (1989). 청소년 약물남용실태. 한국문화 연구원.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1992).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이화여자 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원.

김소야자 (1987). 청소년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 수문사.

김윤희, 김소야자, 이광자, 이소우, 유숙자 (1996). 정신간호총론. 서울:수문사.

김태련, 장휘숙 (1991). 발달심리학. 서울:박영사.

김현수 (1980). 청소년과 약물남용. 의학신보.

박예숙 (1983). 인간의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서울:수문사.

박중규 (1988). 약물사용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특성. 연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박충선, 은종영, 정미영 (1999). 청소년약물남용의 의식실태 및 예방전략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1), 127-138.

보건사회부 (1988). 약물오용, 남용. 서울: 보건사회부.

배종면, 안윤옥, 박병주 (1994). 대학생 흡연량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27(1).

서영대 (1989). 마약류 오·남용의 치료 및 재활 대책. 제 5회 형사정책세미나보고서. 법무부연수원.

서울시 교육연구원(1988). 약물 오·남용·예방지도.

이관용, 김기중, 김재갑, 이태연 (1995). 심리학 개론. 서울:울곡출판사.

- 이경영 (1993). 일부 중학생들의 약물사용 실태. 경북 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호 (1999). 한국청소년의 물질남용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8(2). 237-255.
- 정우식 (1986). 인간: 생의 주기를 통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집문당.
- 주왕기 (1991). 약물남용! 무엇이 문제인가? : 마약류 남용 시민 공개강좌 주제강연. 대한진보협회.
- 최선화 (1991).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적 개입 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청소년학회 (1996).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예방대책연구. 문화체육부.
- 홍강의, 이영식 (1998). 인간발달의 통합적 이해.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Becker, H., & Marloff, D. (1982). Informal Social Control and their inquence on Substance Use, in control over intoxicant use, Edited by Einberg N. and hardin, W. M. Human Science Press, New York..
- Botvis, G. J. (1986). Substance abuse prevention research: Recent development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School Health 56, 369-374.
- Connell PH (1979): Addiction in Adolescence, Some Comments about Its Diagnosis, Treatment, and Vulnerable Groups, Community Health 6. (1974):Addiction in Adolescence-Some comments about its diagnosis treatment and vulnerable groups, Community Health. 6:29-33
- Erikson, E. H. (1972). Eight stages of man. In C.S. Lowatelli & F. Stendler(Eds.). Readings in Child Behavior and Child Development. New York. Harcour Bracex. Javanovich.
- Fishman, H. C., Stanfon, M. D., & Rosman (1982). B.L. Treating families of adolescent drug abusers. In M.D. Stanton, T.C. Todd, & Associates(eds), The Family therapy of drug abuse and addic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Freud, S. (1950). The ego and id. In standard edition Vol 19. London: Hogarth
- Friedman, A. S., Utada, A., & Morrissey, M. (1987).. Families of adolescent drug abusers are 'rigid': are these families either 'disengaged or enmeshed' or both? Family Proc.
- Hall, G. S. (1916). Adolescence(2nd ed). NY:Appleton
- Havighurst, R. L.(195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 Lettieri, Dan J. (1975). Predicting Adolescent Drug Abuse, NIDA.
- Mandelson, J. H., & Mell, N. K. (1979). "Biological concomitants of alcoholism. Engel, N. Journal medicine, 301. 912-921.
- Mcllellan, A. T., Woody, G. E., & O'Brian, C. P. (1979). "Development of Psychiatric Illness in Drug Users: Possible Role of Drug Preference, "N. Engel, J. Med. 301. 1310-1314.
- Omery, A. (1983). Phenomenology : a method of nursing research. ANS,1, 37-48.

-Abstract-

Key concept : Adolescent, Drug abuse

## The Adolescents' Experience in Drug Abuse

*Kim, Kway Bun\* · Lee Kyung Ho*

This study was to provide understanding for the juvenile problem of drug brought about by industrialization, and the importance people that we should take a role in helping to resolve the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pproaching the effective methods to prevent Korean adolescents from being involved in drug by examining the factors of their experience.

The method of this study is designed to grasp the adolescents' drug experience, its meaning, its structure and the nursing intervention ways. By applying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hich is based o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researchers hoped to reveal key data in each group. It has been carried on from October 1998 until September 1999 with sample of 5 adolescent inmates in K mental hospital located in Seoul. The data were collected by sincere personal deep interviews and observation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phenomenological method suggested by Giorgi.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leasure seeking: curiosity, joy, and fun; Second, affiliation: formation of clique with the same age; Third, escape from reality:

loneliness, emptiness, heroic mind, self-confidence, self-absorption, and comfort; Fourth, feeble-mindedness: anxiety, fear, and temptation; Fifth, psychological unadaptation: wandering, forfeiture, and incompetence; Sixth, physical counteraction: headache, vomiting, loss of memory, loss of appetite and loss of sensibility; Seventh, psychological confusion: illusion, auditory hallucination and dream; Eighth, recovery of self-consciousness: repentance, desire and awareness

This study results in the following suggestions of the nursing intervention

1. To cultivate a wholesome game culture for the adolescents.
2. To make up the group activities so that the adolescents can establish their sense of identity through a variety of group counseling program.
3. To foster the capability to cope with the change in the process of social accommodation.
4. To enforce the social life skill for the adolescents.
5. To practice the systematic education about drug use.
6. To develop the social education programs.
7. To help the adolescents build up their sense of identity by applying the adolescent cure programs.

Above all, it is necessary that school and community as well as home should establish the educational environment paying special concern and consideration to the adolescents.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Part-time instruct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